

# 전북자치도 민생살리기 대책 **도내 건설경기에 심폐소생**

### 고금리·부동산PF 부실 등 지역 건설업체 운영난 단기대책으로 공공 발주하는 건설사업 규모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65개 사업에 774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자금 경색 위기에 내몰린 지역 건설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경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고금리 및 부동산PF 부실 등에 따라 건설경기가 악화돼 운영난을 호소하는 지역 건설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단기적으로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조기집행해 건설경기 활

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건설여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기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68억원에서 318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상반기 내 기성금 60%가량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지방도 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도내 건설업체의 운영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호우 재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재해복구비 481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이달말 준공을 목표로,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규모 사업은 6월말 주요 공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5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구간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주요 공정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예산사업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법, 새만금사업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등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투자기업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때 지역업체 이용실적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최대 5%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주)LG화학 이차전지 등 도내 기

업의 투자 유치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 공장 신축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는 새만금투자기업, 지역건설협회와 함께하는 건설산업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5월중 체결하여 입주기업 공장 신·증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새만금국가산단 등 민간공장 신축공사에 지역업체 수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북특별법'에 4개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으로 지역업체에 우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대도시권 중심의 독과점 형태로 발전해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없어(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 100위 내 전북 1개사) 지역간 건설 역량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업체 우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장기간 기울어진 건설기술 역량 차이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 건설기술진흥법을 추가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지난 2017년 공사 분야에, 2022년 기술 용역 분야에 미련해 지역기업 참여가 확대된 바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시행령 개정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단기효과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통해 지역 건설여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어린이날, 전북자치도와 함께해요'

### 29일부터 사전 예약... 체험행사 등 7개 분야 75개 프로그램 준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추억을 준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한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오전, 오후 각 400명씩 초대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5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어린이날 대축제에는 1일차에 식전 공연과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관 내부와 외부에서 즐길 수 있도록 7개 분야의 75개의 체험·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과학과 환경 등 미래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해 어

린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2일차인 6일 오전에는 도내 아동복지시설관을 대상으로 공연, 상설체험, 요리교실 등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민속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및 체험공간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선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식 누리집(<https://jchil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재훈 기자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1차 회의.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위원들과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1차 회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 실천

### 전북자치도, 다회용기 사용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기여

전북특별자치도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동참시키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도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실천 서약 및 반입 제한 홍보와 캠페인 등 '자율 참여 방식'과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등 '공급자 중심 방식'의 1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탈 1회용품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 △다소비처, 민간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 △내내곳곳,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를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공공기관 참여 정책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 12월에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여 도청 및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

을 마련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품 반입금지, 커피매장·편의점·문구점 1회용품 판매·사용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로 도민이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을 위해 1회용품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70곳, 장례식장 6곳, 지역축제·행사 18곳 등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국·도비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다회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내 곳곳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실천운동본부 구축 △캠페인, 광고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학교, 단체, 기업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복지국장은 "1회용품은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며 "기후위기로부터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추진

### 하반기부터 방사능 항목 추가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전북자치도 수산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유해 수산물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2024년부터 확대한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수산물에 존

재하는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및 금지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0년도에는 50건, 2021년도 130건, 2022년도 190건, 2023년도 450건의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150건이 늘어난 600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수산물에 대한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항목을 176항목(중금속 3, 방사능 3, 동물용의약품 148, 금지물질 22)으로 기준을 강

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상반기 내 베타핵종분석장비(액체섬광계수기)와 전처리 장비를 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항목을 감마핵종(요오드, 세슘)뿐만 아니라 삼중수소(베타핵종)까지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도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0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 제도는 참여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3년간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양식장에 한해 도지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119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최초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인증된 양식장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